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이 따로 있고, 그래서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세가지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된다(미주 대학 수련회에서 선포된 메시지)

1. 하나님의 능력 세가지가 뭐냐?

첫째는 무한한 능력이고, 둘째는 초월의 능력이고, 셋째는 전무후무한 능력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다.

1) 무한한 능력은 창1:27, 창2:7, 히4:12에 나타난 능력이다. 이것을 내 속에 자리잡게 하라는 것이다(3세팅)

① 창1:27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이것이 있다(전3:11). 세상에서는 이것을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한다.

② 창2:7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고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Soul)을 주셨고, 그 영혼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영적 세계이다(고전2:10-12).

이것을 못 누리면 무능, 무기력에 빠지든지, 육신적인 만족에만 빠지든지, 극단적으로는 귀신 체험에 빠진다.

③ 히4:12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 혼, 관절, 골수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살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요14:12-14).

2) 초월의 능력은 뭐냐? 성도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 적어도 세가지 초월의 능력을 누리야 한다는 것이다(3초월).

불신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이고, 다른 수준이다.

① 보좌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만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이다. 말씀을 이루고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천사를 움직인다고 했다(시103:19-21, 사62:6, 계8:3-4)

②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시139:7-10)

③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이다. 온 땅을 흑암이 덮지만 이 빛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3) 전무후무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① 성경의 일곱 렌넛트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누렸다는 것이다.

②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올까? 누구도 겪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가? 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아픔까지도 새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사43:18-19)

③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하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중요하다(행6:5).

2. 이때 오는 결론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1) 우리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했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했다(창1:31).

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것이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모 탓, 세상 탓, 누구 탓도 아니다.

첫 인생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고, 모든 인생이 그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다(요8:44, 요10:10).

②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본래의 축복된 존재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다.

모든 죄, 저주, 운명,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다 끝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이제는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다(롬8:15-17).

성령으로 인치시고(엡1:12), 성령으로 함께 하여 도우시고(요14:16-18),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이다(행1:8)

2) 내 인생의 근본을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을 세팅한다고 한다.

① 무엇을 위해 세팅을 해야 하는가? 11-12절이다(이유)

성도를 온전케 하며(나 자신부터 살린다), 봉사의 일을 하며(이웃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주님의 교회를 살린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도 주신다는 것이다.

②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 13절 상반부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아는 만큼 된다(방법)

말씀 속에서 그 분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편집하라.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생명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며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 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전도로 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라. 나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③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야 하는가? 13-15절이다(목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13절),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때까지(14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15절)

3)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학업, 기능, 산업)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도전해보라.

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보라.

기도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다. 시편의 반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작품이다.

② 내가 겪은 일, 현장에서 겪은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보라.

집사가 현장에서 어린이 살렸던 것을 메모해서 책으로 내고 어린이 전문사역자가 된 분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할 수 있고, 특히 장애 가진 자녀를 가진 분들은 더욱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다.

③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만들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역사 자료로 남겨 놓는 훈련을 하라.

결론-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가지 능력(무한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전무후무한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축복한다.